

윤보선 고택의 별채인 산정재 모습. 70년대에 3김씨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이 윤보선 대통령과 자주 회합을 갖던 곳이다.

덕을 쌓아야 인물 낸다

풍수적 기운이 짱짱한 화강암 지반의 서울 종로구 일대.

특히 안국동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 명당 터이다.

그중에서도 '안국동 8번지' 윤보선 고택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명택이다.

한국 정치의 산실이라고도 불리는 이 고택을 처음으로 낱낱이 밝힌다.



산정체로 들어가는 철제 소문(小門). 전통의 상징성과
모던한 아름다움이 이상적으로 결합한 문으로, 윤보선
전 대통령이 직접 디자인했다고 한다.

서울 도심의 숨은 명당 ‘안국동 8번지’



‘유천회해’라고 적힌 추사체 현판 글씨. ‘하늘과 바다를 희롱하며 논다’는 뜻으로 선비들의 호방한 기개가 담겨 있다.

과, 정치인 이종찬 씨 집안과 윤보선 전 대통령 집안이 꼽혔다.

이종찬 씨 집안은 선조 때 인물인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의 직계 후손으로서 8대를 내리 판서를 배출하였고, 대대로 서울에서 거주하며 삼한갑족(三韓甲族)이란 소리를 들었다. 상해 임시정부의 이시영(李始榮), 독립운동가이자 아나키스트로 최근 조명 받고 있는 이희영(李會榮) 형제가 모두 이 집안 사람들이다.

윤보선 전 대통령 집안은 대통령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근·현대사에서 활약한 이 집안 윤씨들이 한국인명사전에 무려 50여 명이나 들어가 있다. 한 집안에서 인명사전에 50여 명이나 등재될 정도로 많은 인물을 배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러나 이씨 집안은 아쉽게도 고택이 남아 있지 않고, 윤씨 집안은 다행히 고택이 남아 있다. 그 집이 바로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해위(海葦) 윤보선(尹潽善, 1897~1990) 고택이다. 그러니까 안국동에 있는 윤보선 고택은 1천5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명택이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서울은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반도의 중심으로 우뚝 선 도시다. 한국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천5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수도이자 세계적인 도시 서울. 이 서울을 대표하는 명문가는 어떤 집인가?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분야의 원로 어른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

외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고택

고택 풍수에 관심 있는 나로서는 전작부터 한번 구경해보고 싶었던 집이 바로 이 집이다. 그러나 윤보선 고택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집이다.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 보고 싶다고 해서 쉽게 볼 수 있는 집이 아닌 것이다. 한국의 이름난 고택들은 대체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편이지만, 이 집만큼은 예외다. 그동안 TV 방송국을 비롯한 여러 언론매체들이 수차례 취재 또는 촬영을 시도 했지만 집주인의 허락이 나지 않아서 촬영을 못한 경우가 여러 번이다. 현재 안채에서 장손 가족이 살림을 하고 있으므로 찾아오는 사람 모두에게 안방 모습을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집주인은 윤보선 선생의 장남인 윤상구(尹商求, 53) 씨.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회 장로를 맡고 있다는 사항만 밝힌다. 조용한 성품이라서 남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할 뿐만 아니라, 언론에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은 더더구나 기피한다. 익명의 서민은 매스컴을 타고 싶어 안달이지만, 유명 명문가 후손에겐 매스컴에 노출될수록 돌아오는 것은 사생활의 제약이다.

다행히 윤상구 씨에게 취재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인터뷰는 하지 않고 고택에 대한 사진촬영만 한다는 조건이었다. 고택 내력에 관한 몇 가지 질문 사항은 이메일로 주고받았다. 내가 이 집에 대한 참고자료로 이용한 것은 한옥 전문가인 신영훈 씨가 91년에 취재한 <한국의 종갓집>이란 잡지 연재물뿐이다.

안국동 8번지 고택. 원래 이 집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쯤인 구한말에 민씨 성을 가진 대감이 지은 집이라고 한다. 인품이 훌륭해서 ‘민 부처’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장안의 유명한 도편수(우두머리 목수)를 동원해서 99칸이 넘는 거대한 규모의 저택을 짓는다는 소문이 당시 임금인 고종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고종이 민 부처를 소환하여 “네가 대궐만큼이나 큰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반역할 의사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때 민 부처의 답변이 결작이다. “이 집은 부처가 살 집입니다.”

부처가 살 집이라는 것은 불교 사찰을 의미하고, 사찰이라면 당연히 크게 지을 수 있다는 말이다. 동시에 자신의 별명이 부처이니 자기가 살 집이라는 의미

도 된다. 이 재치 있는 임기응변에 고종도 파안대소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그후 일본에 망명했다가 귀국한 박영효(朴泳孝, 1861~1939) 대감이 적당한 거처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고종이 민 부처에게 박영효에게 집을 넘겨주라는 명령을 내려서 박영효가 얼마간 살았다고 한다.

담장 하나 사이로 바로 옆집은 《열하일기(熱河日記)》와 《허생전(許生傳)》의 저자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과, 연암의 손자로 개화파의 수장격이던 박규수(朴珪壽, 1807~1876)가 살던 집인데, 우리나라에 몇 그루밖에 없는 백송이 아직 그 터를 지키고 있다. 지금은 현법재판소로 바뀌었다.

개화기 역사를 보면 박영효는 갑신정변(1884)에 참여했다가 실패하자 1차 일본에 망명한 적이 있고, 그후 김홍집 내각의 대신으로 있으면서 고종 폐위 음모에 가담하여 또다시 일본에 망명했다가 1907년에 귀국하여 용서를 받았다. 두 번의 일본 망명과 귀국 등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박영효가 이 집에 살기 시작한 시기는 아마도 1차 망명에서 돌아온 1880년대 후반쯤이 아닐까 싶다. 김옥균(金玉均, 1851~1893)이 박영효에게 써준 편액이 이 집에 남아 있으니 두 번째 망명 이후는 아닐 것 같다.

이후로 잠깐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가 1910년대에 윤씨 집에서 이 집을 구입하였다. 그 이후로 윤씨 집안이 계속 여기에 살아왔으며 현재까지 종가로 유지되고 있다. 100칸이 넘는 저택이라서 사람이 많이 모여 살 때에는 일가친척 70여 명에다 하인들까지 합해 100여 명이 거주했다고 한다. 옛날에는 바깥 행랑채, 큰 사랑채, 뜰 아래채, 곳간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문간채, 산정채, 안채, 작은 사랑채만 남아 있는 상태다. 현재 대지 1천400평, 건평 250평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대문 하나에 소문 세 개의 '회삼귀일' 구조

윤보선 전 대통령은 충남 아산군 둔포면 신항리 새말이라는 곳에서 태어나 10세쯤 이곳으로 이사와서 그 이후로 줄곧 이 집에서 살았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 집에서 살았고 대통령을 그만둔 후에도 이 집에서 살았다.

고택 돌담길을 따라 대문 앞에 서니 왼쪽 편으로 40~50센티미터 높이의 네모난 돌이 눈에 들어온다. 말을 타고 내릴 때 발을 디디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하마석(下馬石)이다. 서울의 전통 가옥 대문 앞에 아직까지 하마석이 남아 있는 것은 희귀한 사례이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세 개의 소문(小門)이 나타난다. 오른쪽 소문은 별채인 산정(山庭)채로 들어가는 문이고, 가운데 나무 사이로 몇 미터 들어가서 여는 문은 안채로 들어가는 문이며, 왼쪽 문은 작은 사랑채로 통하는 문이다. 큰 대문 하나에 작은 대문 세 개의 구조는 셋이 모여 하나로 귀결하는 회삼귀일(會三歸一) 구조이다.

삼한을 통일하고 고려가 성립할 때 자주 등장한 원리가 회삼귀일이라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이를 회통과 통합의 원리로 존중해왔다. 세 개의 소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문은 산정채로 들어갈 때 거쳐야 하는 작은 문이다. 철제로 만든 작은 문인데 나같이 둔감한 사람이 보기에도 아주 귀엽고 아담해 보인다. 철제로 되어 있어 튼튼한 질감을 주면서도 심플하다. 문의 전체 높이는 180센티미터, 여닫이 높이는 1미터 정도로 낮게 되어 있어서 보는 이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는다. 문 위에는 작은 지붕까지 있어 문이 지녀야 하는 품위를 모두 갖춘, 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느낌을 분명히 주는 문이다.

윤상구 씨 설명에 의하면 원래는 나무로 된 문이었는데, 6·25 때 부서져서 60년대 초반 해위 선생이 직접 모양을 설계하여 쇠문으로 바꿨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예쁜 문은 해위 선생 작품이다. 수많은 고택을 다녀보았지만 이처럼 예쁘면서도 실용적이고, 문이 갖는 상징성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 문은 보질 못했다. 전통의 상징성과 모던한 아름다움이 이상적으로 결합한 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은 무엇인가? 동양문화에서 문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은 깊다. 그 상징성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성(聖)과 속(俗)의 경계를 나타낸다. 성스러운 공간과 세속의 공간을 구분하는 장치가 문이다. 바깥에서 중심부로 들어갈 때마다 문을 하나씩 통과하는데,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세속의 세계에서 좀더 성스러운 공간, 즉 중심부로 점점 더 진입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마치 옷을 한 껌풀씩 차례

차례 벗는 것처럼 문을 통과할수록 세속의 때를 벗고 정화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찰에 들어갈 때 맨 앞의 일주문부터 시작해서 사천왕문, 불이문, 금강문 등등 여러 개의 문을 거쳐서 대웅전에 도달하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구중궁궐(九重宮闕) 또는 구중심처(九重深處)라고 할 때 구중(九重)이라는 의미는 아홉 개의 문을 지칭한다. 동양에서 문을 통해서 성스러운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면, 서양에서는 실내 공간의 높이를 통해서 성스러움을 확보하려 했다. 서양의 유명 성당 내부에 들어가면 동양의 사찰에 비해서 천장이 유난히 높다. 천장이 높으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외감과 신성함을 느끼기 마련이다. 반대로 천장이 낮으면 아주 답답하다. 동양이 문이라면 서양은 높이에 주목한 것 같다.

윤보선 고택의 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일단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산정채로 가는 작은 소문을 통과하고, 다시 산정채의 출입문을 열도록 되어 있다. 문을 하나하나 통과할수록 그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 신성하고 깊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끼게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철제 소문의 존재는 산정채의 품격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이 많아서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활에 너무 바쁘게 쟁기면서 살아왔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산정채는 어떤 용도의 집인가? 우선 이름부터 특이하다. 뵐 산(山)에 정자 정(亭)이니까 산속에 있는 정자라는 뜻인데 이 집에 산이 어디 있단 말인가?

집 안에 들어놓은 산속 별장, 산정채

그런데 과거의 집은 현재의 집과 전혀 달랐다 한다. 옛날에는 현재 연못 자리에서 대문 쪽까지 작은 산맥을 만들어놓았다고 한다. 연못도 있었고 연못을 건너가는 다리도 있었으며, 그 옆에 작은 동산이 있었다. 그 동산을 산으로 간주하고 산 옆에 있는 별채라는 뜻에서 산정채라고 했다.

비록 산정채는 집 안에 있는 별채이지만 마치 산속의 정자에 있는 것 같은 호젓함과 한가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름을 산정채라고 짓지 않았나 싶다. 실제로는 집 안에 있으나 관념상으로는 산에 들어와 있는 셈이다. 임천간(林泉間)에 노니는 걸 좋아했던 선비들의 풍류를 엿볼 수 있는 작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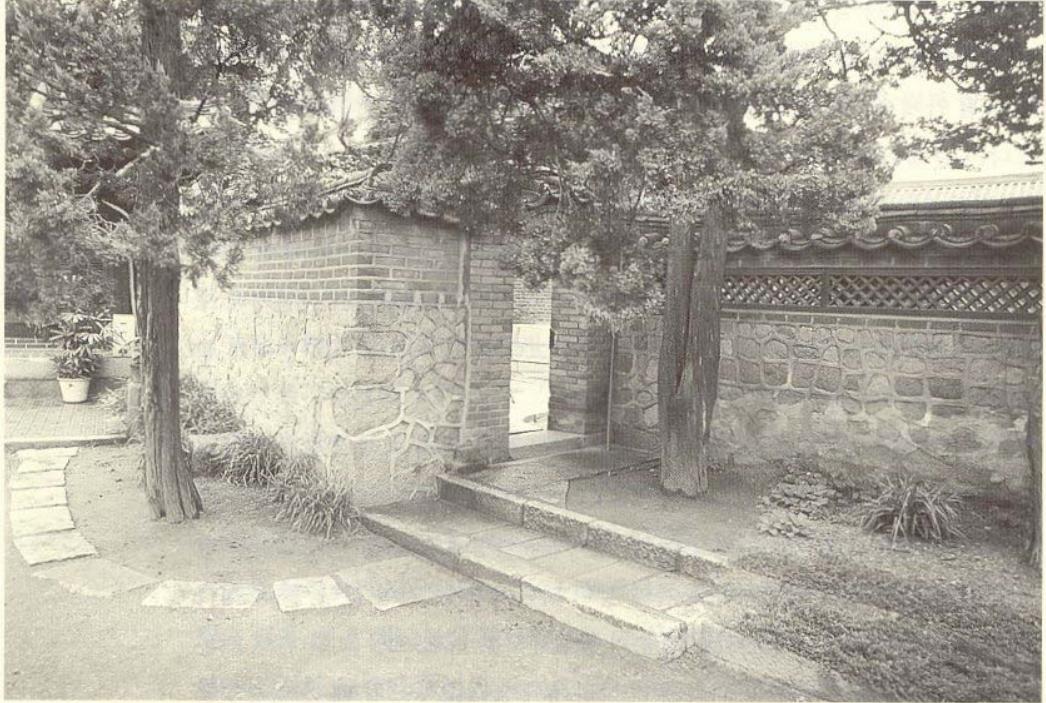
산정채에는 그 풍류에 걸맞는 현판이 하나 큼직하게 걸려 있다. ‘유천희해(遊天戲海)’, 하늘과 바다 위에서 노닐고 춤춘다는 뜻이다. 하늘과 바다에서 놀 수 있어야 진짜 노는 것 아니겠는가. 그 호탕함이 부럽다. 글씨체에도 산정채에 드나든 선비들이 가슴에 품었던 호방한 기개가 그대로 묻어 있다. 집주인에게 확인해보니 추사의 친필이라고 한다.

정면 네 칸, 측면 두 칸 크기인 산정채에는 이 현판 글씨 외에 조그만 편액이 하나 더 걸려 있다. ‘태평만세(泰平萬歲)’라고 새겨진 편액이다. 그런데 편액 모양이 특이하다. 동행한 사진작가 권태균 씨의 설명에 의하면 박쥐 모양을 딴 것이라고 한다. 역시 답사는 전문가와 같이 다녀야 얻는 것이 많다. 중국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의가 살았던 장춘의 궁궐에서도 박쥐 모양을 한 편액을 본 적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빨래를 두드릴 때 쓴 다듬잇돌의 양옆에도 박쥐 문양이 새겨 있다.

왜 박쥐인가? 서양에서는 박쥐가 악마의 상징이지만, 동양에서는 반대로 오복(五福)의 상징으로 본다. 박쥐를 한자로 복(蝠)이라고 쓰는데, 이 자가 복(福) 자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신구에도 박쥐 문양을 새겨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산정채는 한국 현대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윤상구 씨의 설명에 의하면 영국 에딘버러대학에서 고고학을 공부한 후 1932년 여름 귀국한 해위 선생이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일체의 바깥 활동을 삼가면서 침거한 곳이며, 우리 나라 최초의 정당인 한국민주당의 산실이었고, 70년대까지 우리나라 야당 회의실로 쓰인 곳이기도 하다. 한국 현대 정치사의 중요한 일들이 바로 이 산정채에서 논의되었던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젊었을 때부터 여기를 드나들던 멤버이다. 지난



안채와 작은 사랑채
를 구분해주는 돌담.
돌담에 작은 문이 나
있다.

1980년 '서울의 봄' 때에는 해위 선생이 당시 야당의 양대 거물인 김영삼, 김대중 씨를 이곳으로 불러서 야당 후보 단일화를 당부했다고 한다. 그것이 해위 선생의 공식적인 마지막 정치활동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지닌 곳이다 보니 산정채는 TV 방송국에서 드라마 촬영 무대로 눈독을 들이는 곳이다.

산정채에서 눈여겨볼 장치 하나는 '양실(洋室)'이라고 불리는 햇볕가리개다. 산정채의 한쪽 면이 서향이어서 오후가 되면 석양이 낮게 깔려 실내로 깊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햇볕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우리나라 고택 가운데 이러한 햇볕가리개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강릉 선교장, 해남 녹우당, 비원의 연경당, 그리고 산정채라고 한다. 산정채의 햇볕가리개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러시아 양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한말 개화기 때 러시아 사람들이 제작했다는 설이 있다.

녹색의 잔디와 붉은 베고니아 꽃을 배경으로 고요한 중후함 속에 서 있는 산

정체. 한국적인 격조와 품위가 배어 있는 건물임이 틀림없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건물이 아직 한 채라도 남아 있어서 다행이다. 시골도 아니고 1천500만 인구가 복작거리는 서울에서 이처럼 품위 있는 건물을 유지하다 보니 함부로 집을 개방할 수 없는 집주인의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

이번에는 안채를 보자. 이 집의 안채는 다른 고택의 안채와는 달리 누마루가 있다. 대개 누마루는 남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사랑채에 달려 있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 집만큼은 안채에 누마루가 달려 있어서 다른 집 안채처럼 여성적인 분위기가 아니다. 또한 건물 크기도 산정채보다 훨씬 크고 높아서 안채 특유의 아늑함은 적고 그 대신 당당한 위엄을 풍긴다.

윤보선 대통령이 집무하던 안채

아니나 다를까. 이름은 안채지만 윤보선 대통령이 한때 여기에서 집무를 했다고 한다. 4·19 이후 내각책임제 하에 장면 씨가 총리에 취임했으나 마땅히 거주할 사무실이 없어서 반도호텔을 임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이던 윤보선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었다. 실세 총리가 처한 상황을 감지한 윤 대통령은 그림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장면 씨에게 청와대에 와서 살기를 권유했다. 그리고 자신은 안국동 이 집 안채에 들어와 살면서 대통령 집무를 보려고 했다. 그러나 5·16에 이은 대통령직 하야로 그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대통령이 집무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접견할 수 있도록 안채 구조를 일부 바꾸었기 때문에, 일반 고택의 안채와는 다른 당당한 분위기를 가진 건물로 변한 것 같다. 안채에 걸려 있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이라는 현판이 그러한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현재는 장남인 윤상구 씨 가족이 안채에 살고 있다.

안채에서 눈에 띠는 점은 마당에 깔린 모래다. 마당에 흰 모래가 깔려 있어 방문객에게 정갈한 느낌을 준다. 한옥 마당에 모래를 깔아두면 빛을 반사하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낮이라 해도 방 안 조도가 아무래도 어둡기 마련인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모래가 반사하는 빛을 이용했다. 모

래는 빛을 받으면 그것을 다시 반사하는데, 그 반사된 빛이 방 안으로 전달된다 는 것이다. 따라서 마당에 간 흰 모래는 일종의 간접 조명장치였던 셈이다.

마당에 깔린 흰 모래에는 실용적 용도 외에도 또 하나의 미학이 감춰져 있다. 바로 정갈함과 고요함이다. 모래에 담긴 정갈함과 고요를 맛보려면 절 마당에 가보아야 한다. 그것도 방문객이 아직 오기 전인 새벽녘에 가보아야 한다. 행자 스님이 쓸어놓은 절 마당에는 규칙적으로 왔다갔다한 대빗자루의 흔적이 물결처럼 남아 있다.

방문객의 등산화 발자국이 찍히기 전인 꼭두새벽에 그 대빗자루의 선명한 흔적을 바라보노라면 그 어떤 정갈함과 고요함을 느낄 것이다. 선적(禪的) 희열이 라고 표현해야 할까. 특히 일본 사찰에 아침 일찍 가보면 이와 같은 빗자루 자국이 선명한 마당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 요는 사람 발자국이 찍히기 전에 가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내가 고택을 방문한 시간은 오전 10시쯤으로 그리 이른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이 집 안채 마당에는 가지런한 빗자루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풍수에 관심 없는 집주인

이 집 풍수를 보자. 집주인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명당에 관심이 없고, 덕을 쌓으면 복이 온다는 정도만 생각했다. 그래서 이 집터에 대해 가전(家傳)되는 정보는 하나도 얻어들을 수 없었다. 가전되는 정보를 접할 수 없을 때에는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는 자가발전의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다. 내가 보는 안목에 만의 하나 착오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위험 부담이 없을 때는 옛날 어른들에게서 전해 내려온 가전 정보와 현장에서 내가 독자적으로 파악한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이다. 강호에 숨어 있는 풍수계의 고수들에게 일발 역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지만, 이 집 같은 경우는 부득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동안 쌓은 나의 내공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

먼저 서울의 전체 풍수를 스케치하면서 안국동으로 들어가보자. 전통 도읍지의 풍수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사방에 산이 밭쳐주고 있어야 한다. 사방이라 함은 패철(佩鐵, 지관이 몸에 지니던 자석) 상에 나타난 건(乾, 북서) · 곤(坤, 남서) · 간(艮, 동북) · 손(巽, 동남)이나 자(子) · 오(午) · 묘(卯) · 유(酉) 또는 인(寅) · 신(申) · 사(巳) · 해(亥) 방향을 말한다. 사방에 산이 있다는 것은 그 안쪽에 사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오는 산의 정기를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산을 진지 삼아 외적의 침입을 방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는 강이 흘러야 한다. 강은 물이고 산은 불로 본다. 동양사상에서는 수(水)와 화(火)를 오행을 대표하는 선수로 보기 때문에 이 둘을 가장 중시한다. 화만 있고 수가 없으면 건조해서 생명이 잉태될 수 없다. 비유하자면 고층 아파트에 가습기가 없으면 몸이 뻣뻣해지고 목도 건조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반드시 강물이 흘러야 한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강물은 운송수단이다. 유통교통과 자동차가 발달하기 전에는 강물이 고속도로와 같은 운송수단이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셋째는 자급자족할 수 있을 정도의 들판이 있어야 한다. 도읍지에는 인구가 밀집하기 마련이고,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식량의 자급자족이다. 그래서 넓은 들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곳은 도읍지가 되었다. 신라의 경주가 그렇고, 고려의 개성, 조선의 서울, 북한의 평양, 후백제 견훤의 전주가 그러하다.

서울은 경복궁 뒤의 북악산을 주산으로 하여 낙산을 좌청룡으로, 인왕산을 우백호로, 남산을 안산으로 한다.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은 목체(木體)의 산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국지사(國地師) 대우를 받은 고 지창룡 선생의 이론에 따르면 제왕이 사는 수도에는 오덕구(五德丘)라고 해서 목·화·토·금·수형의 산이 전부 갖춰져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경복궁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목산(木山)이 보이질 않는 결점이 있어서, 부득이 남산 이름을 목멱산(木覓山)이라고 지었다는 것이다. 멱(覓)은 찾는다, 구한다는 뜻이므로 목멱산은 목을 찾는다

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남산은 형태로 보아서 목산은 아니지만 이름으로 대신 비보한 셈이다. 그래서 남산을 길게 누운 나무 형국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조선의 이씨(李氏) 왕조가 특히 목을 중시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성씨 탓이다. 한문으로 이(李) 자를 파자하면 목(木)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씨 왕조는 풍수도참적인 맥락에서 목을 자신들의 운명과 동일시했다.

서울의 명당 안국동 일대

윤보선 고택이 들어서 있는 안국동 일대(계동·가회동·화동)는 거시적으로 보아 경복궁의 좌청룡 자락인 낙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좌청룡의 큰 줄기는 낙산이지만, 미시적으로는 낙산 안쪽으로 다시 여러 갈래의 내청룡·내백호로 분화하면서 그 안에 살기 좋은 명당자리를 형성하고 있다. 조선시대 서울 양반들이 모여 살았던 북촌이 바로 이 청룡자락 내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진 내청룡·내백호에 앉아 있는 동네다. 역대로 서울 명사들은 이 줄기에 살았다.

이 동네를 자세히 관찰하면 작은 지맥들이 희미하게나마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윤보선 고택에서 볼 때 중앙고 뒷산에서 나와 인촌고택, 그리고 현대 본사로 이어지는 라인이 내청룡이라면, 감사원 쪽에서 나와서 정독도서관—소격동—미 대사관저—한국일보—인사동까지 이어지는 라인을 내백호로 볼 수 있다.

도로가 나면서 잘리긴 했지만 이 동네에는 아직까지 희미하게나마 이러한 작은 용맥들의 융기가 남아 있는데, 큰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점차 훼손돼가는 추세다. 북촌 지역만큼은 큰 건물의 신축을 가급적 피해 그나마 남아 있는 아기자기한 용맥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 자그마한 용맥들의 꿈틀거림을 바라다 보면 삶에 대한 새로운 의욕이 솟아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암반이다. 종로구청에서 발행한 〈종로구지(鐘路區誌)〉를 보면, 종로구 전역의 지층이 화강암이라고 나와 있다. 종로구 주위에는 편무암이 많지만, 종로구 지반에는 유독 단단한 화강암이 많은 것이다. 형국이 빼어

나면 그 속내인 지기도 맑은 법, 이 지역의 풍수적인 기운이 짹짱함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사상을 작품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소설가 김종록 씨의 작업실이 인사동에 있어서 일이 있을 때마다 들러 하룻밤씩 자는데,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에서 잔 것보다 몸이 훨씬 부드럽고 개운하였던 경험이 있다. 산속 암자에서 자고 일어난 것 같은 상쾌함이었다. 인사동이 사람도 복작거리고 공기도 탁해서 잠자리가 불편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였다.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다.

이 친구가 몇 년 전 인사동 집의 정화조를 묻기 위해서 땅을 2미터 정도 파내려 간 적이 있는데, 혹시 물이 나오면 방비하려고 동판까지 준비했다. 그러나 땅을 파보니 뜻밖에도 황금빛 마사토가 나왔다. 마사토란 화강암이 흙으로 변해가는 중간 과정에 있는 비석비토(非石非土)의 흙을 가리킨다. 마사토는 기가 지나치게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아서 지관들이 선호하는 흙이기도 하다. 이 지역 일대의 지반에는 화강암이나 마사토가 깔려 있어서 잠자리가 개운했던 것으로 보인다. 추측컨대 윤보선 고택의 지층도 이와 같을 것이다.

'순환 발복' 고려한 다섯 개의 좌향

윤보선 고택의 풍수에서 가장 흥미 있는 대목은 건물마다 각기 좌향(坐向)이 다르다는 점이다. 좌향이란 쳐다보는 방향을 일컬으므로, 건물마다 쳐다보는 방향이 다르다는 말이다. 먼저 기준이 되는 대문의 좌향을 보자.

대문은 갑좌(甲坐)이다. 갑좌는 거의 서향이다. 서향으로 대문을 잡은 이유는, 지금은 복개되었지만 옛날에는 삼청동 가는 길에 개천이 흐르고 있어서 서향으로 대문을 잡으면 이 개천을 앞에다 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향은 이 개천을 의식한 좌향이다.

산정채는 ㄴ자 모양이지만 창문이 세 군데로 향하고 있어서 세 개의 좌향이 나온다. 갑좌, 병좌(丙坐), 임좌(壬坐)가 그것이다. 한쪽은 대문과 같은 방향인 갑좌이고 다른 한쪽은 병좌이다. 병좌는 북향이라서 주산이면서 동시에 백호

에 해당하는 북악산 쪽을 바라보는 방향이다. 산정채 마루에 서서 북향을 바라보면 이 북악산의 끝 봉우리가 보이는데, 그 모습이 꽃봉오리 같기고 하고 문필봉 같기도 해서 상서롭게 보인다. 병좌는 다분히 이 북악산 봉우리를 받기 위한 좌향으로 해석된다. 산정채에는 임좌도 있다. 이는 남향이라서 햇볕이 많이 들어온다.

안채 정면은 해좌(亥坐)이다. 하지만 안채 역시 그자로 굽어 있기 때문에 기역자로 굽어지는 부분에서 또 하나의 좌향이 성립된다. 그것이 유좌(酉坐)이다. 유좌는 동향인데, 안채 안방과 건넌방이 동향으로 되어 있다. 안채 옆에 담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작은 사랑채는 임좌이다. 해좌와 임좌는 15도 차이인데, 거의 같은 남향에 속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집 건물들의 좌향은 갑·병·유·해·임이라는 다섯 가지 방향을 향해 있다. 일반적으로 집터의 좌향은 한 개 아니면 두 개로 잡는 것이 보통인데 비해 다섯 개의 좌향은 좀 많은 편에 속한다. 윤보선 고택은 왜 이렇게 여러 방향의 좌향이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는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풍수를 모르는 사람은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풍수의 이기(理氣)를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중요한 공부거리다. 풍수의 이기파(理氣派) 이론에 따르면 패칠 상에 나타난 24개의 좌향에는 각각 비밀이 숨어 있고, 그 좌향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각기 다르다고 한다.

비유하자면 해는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아침에는 해가 동쪽에 있다 하고, 점심에는 해가 중천에 있으므로 해가 정남에 떠 있다 하고, 저녁 무렵에는 해가 지기 때문에 해가 서쪽에 떠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시간대마다 해가 떠 있는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패칠 상의 24방위도 시간에 따라 순환하면서 어떤 때에는 갑좌가 발복(發福)하고, 어떤 때에는 병좌가 발복하고, 다시 시간이 흐르면 경좌가 발복한다는 것이 이기파의 이론이다.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그 자리가 영원 불변도록 발복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다른 좌향으로 발복이 옮겨간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로테이션

(rotation) 발복' 이치다. 이 세상에 영구불변이란 없고 모든 것은 순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주의 이치이기도 하다.

로테이션 발복의 이치를 파악한 이기파들은 집을 지을 때 □자로 짓는다. 왜냐하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순환하는 발복의 기운을 그때마다 받아먹기 위해서다. 낚싯대를 하나만 드리운 사람보다 네다섯 개 던져놓은 사람이 고기를 잡을 확률도 높은 법이다. 어느 코에 걸릴지 모른다. 그래서 조선조의 풍수 매니아들은 명당도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여러 개를 잡아놓아야만 안심했다고 한다. 물론 □자 집을 지은 배경에는 여러 가지 다른 건축학적인 이유도 작용했겠지만, 풍수가의 입장에서 볼 때 로테이션 발복의 이치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다.

시대적으로도 조선 후기는 한국 풍수사상 최전성을 구가한 시기인 만큼, 서울 북촌 요지에 있는 이 집을 지을 때에도 당연히 당대의 일급 지관들이 컨설팅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때의 지관이란 오늘날로 치면 건축설계사였으니 이 만한 저택을 지으면서 건축설계사 없이 작업했을 리 없다. 문지방을 다듬고 서까래를 올리는 일은 목수가 했지만, 집 전체의 마스터플랜은 지관이 담당했다.

지관의 임무를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얼마나 자연과 조화를 이룬 집을 지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데 있었다. 산세와 용맥이라는 자연과, 건축이라고 하는 인위를 어떻게 최대한 조화시킬 것인가, 자연도 살고 나도 사는 '상생적 건축의 묘용(妙用)'이 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급 지관이란 이 조화의 묘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현세적인 발복이란 결국 조화의 산물 아니겠는가! 조화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가. 자연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게 생태학자들의 외침이 아닌가.

공덕 쌓아 얻은 '마체' 명당

자연과 인위의 조화를 모색하는 학문이 풍수라고 할 때, 그 조화의 터득은 단순히 기술적인 분석과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분석과 지식도 물론 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윤리적 뒷받침이다. 이때의 윤리적 뒷받침이란 바로 덕

을 쌓는 일이다. 적덕(積德)을 하지 않고서는 큰 명당자리를 얻지 못한다는 게 풍수가의 신념일 뿐만 아니라, 동양사상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부분이다.

윤보선 대통령이 기거하던 안채의 모습. 일반 안채와 달리 누마루가 달려 있어 남성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도교에서도 신선이 되려면 호흡과 정신통일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전제는 삼천공덕(三千功德)이라고 말한다. 도교 경전을 보면 공덕을 3천 가지 이상 쌓아야 신선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설파하고 있다. 도교에서 말하는 ‘공과격(功過格)’이 바로 공덕을 체크하는 장부이다. 머리만 좋고 약아빠진



사람은 명당은커녕 신선 승급에서도 반드시 탈락한다. 여기서 적덕과 공덕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집안이 바로 그러한 공덕과 명당에 관한 유명한 일화를 남겼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1994년 초가을,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에 있는 윤보선 대통령 선산을 답사한 적이 있다. 내 풍수 선생님이 적선을 하고 얻은 명당을 보아야 한다고 권유했기 때문이다. 전라도 풍수가에서 회자되는 이야기

에 의하면, 이 집 윗대에 시골로 낙향하여 생활이 어려울 때였다고 한다. 하루는 이 집에 스님이 탁발을 왔는데,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이라 스님에게 마땅히 줄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 집 할머니는 얼른 옆집에 가서 보리쌀을 한 뒷박 꾸어와서 스님에게 드렸다고 한다. 본인이 없으면 그만둘 것이지 옆집에까지 달려가 보리쌀을 뛰다 보시하는 성의를 보인 것이다. 몇 달 뒤, 다시 그 스님이 탁발을 나왔다. 그때에도 다시 옆집에서 빌려서 보시했다. 세 번째 방문에서도 역시 그러한 성의를 보이자, 그 고운 마음씨에 크게 감동한 스님은 보답으로 명당자리를 하나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 자리를 쓰고 난 후부터 윤씨 집안이 크게 발복했다고 한다.

다른 책(《한국 명가의 풍수》, 김호년)을 보니까 윤씨 집안의 명당에 대해서 내용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채록되어 있다. 조선 후기 의정부 공찬(恭贊)을 지낸 윤득실이 당파싸움에 염증을 느끼고 충남 아산으로 낙향하여 농사를 짓고 살았다. 농사를 짓고 살았으니 형편이 넉넉할 리 없었고, 가장인 윤득실이 죽자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런 와중에서도 아들 윤씨는 항상 적선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윤득실의 유지를 받들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둔포시장에서 돌아오던 윤씨는 길에 쓰러져 있



는 스님을 발견했다. 늙은 스님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생사의 기로에 있었고, 윤씨는 스님을 엎어다 집 안에 모시고 극진히 보살폈다. 그 극진한 보살핌에 대한 보답으로 스님이 잡아준 자리가 현재 윤 대통령 선산이 위치해 있는 음봉면 동천리의 명당자리다.

전해오는 두 가지 이야기가 모두 윤씨 집안이 활인공덕(活人功德)으로 명당을 얻었다는 내용이고, 명당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그때 스님이 잡아주었다는 묘 자리를 가보니 좌측으로 마체(馬體) 봉우리 두 개가 설명하게 바라다보였다. 마치 말 귀 형상처럼 하나는 크고 하나는 약간 작은 두 개의 둥그런 봉우리가 나란히 서 있는데, 선생님 이야기로는 이 마체 봉우리가 귀물(貴物)이라고 한다.

현재 이 선영에는 제일 위쪽에 윤보선 전 대통령의 묘가 있고, 그 밑으로 명당이라고 소문난 윤득실 공의 묘가 있고, 그 아래에 윤보선 전 대통령 부모의 묘가 합장되어 있다. 명당도 명당이지만 이 집 선산을 둘러보면서 더욱 인상적인 것은 선영을 관리하는 후손들의 정갈함이었다. 선영 전체가 아주 깔끔하고 정갈했다.

정갈하다는 것은 무덤을 장식하는 데 사용하는 커다란 상석이나 기타 석물이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갑자기 돈 번 졸부들 묘지를 가보면 잡다한 형태의 석물들로 덕지덕지 치장을 해놓기 마련인데, 이 집은 그러한 석물이 보이질 않았다. 그러면서도 묘역 전체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어서 머리카락 하나 떨어진 것 이 없다고 느낄 정도였다. 묘비석도 50센티미터 내외의 자그마한 것 하나만 사용했다. 아주 소박한 단장이다. 그날 나는 동행한 선생님과 “충청도 명문가 선산은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구나” 하는 감탄을 주고받았다.

집 내부 상황 고려하는 ‘실내풍수’

다시 윤보선 고택으로 가보자. 대도시 한가운데에 자리한 고택은 주변 전망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고택 주위로 새로운 건물을 높게 신축해버리면 주변 전망이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변화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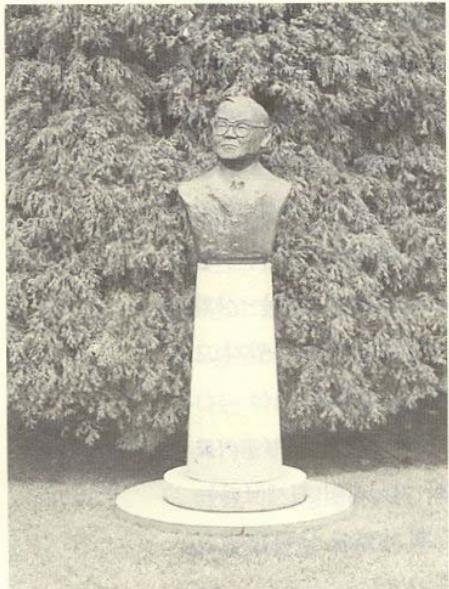
한다. 현재 이 집 대문 바로 앞에도 교회 건물이 있고, 옆으로는 4층 콘크리트 건물이 이 집을 내려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주변 건물이 높이 올라가거나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면 당연히 집의 전망이 바뀌고, 전망이 바뀐다는 것은 풍수적으로 주변 산봉우리들〔砂格〕이 높이 올라가거나 바뀌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건물을 짓지 못하게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그러므로 현대에 들어서는 도시에서 명택을 구한다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되었다. 언제 도로가 날지 모르고, 언제 대형 건물이 들어설지 모르는 상황이다. 처음에는 좋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격이 통째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명당을 보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도시적 상황에 적응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실내풍수(室內風水)’, 또는 ‘가상학(家相學)’이라는 풍수이다. 집 바깥의 거시적인 형세보다는 집 내부의 책상 배치나 문 내는 방향, 침대를 두는 방향, 벽지 색깔 등에 초점을 맞춘다.

나는 이러한 새로운 흐름의 풍수를 ‘소풍수(小風水)’라 표현하고 싶다. 청룡·백호·득수·안산 같은 주변 경관의 스케일을 중시하는 대풍수(大風水)의 시대는 가고, 집 내부의 공간 배치에 관심을 갖는 소풍수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는 현대인이 자연과 격리되고, 인공 구조물이 밀집된 도시로 삶의 공간을 옮기면서 나타난 필연적인 현상이다. 대풍수가 자연을 다루는 풍수라면, 소풍수는 인공 구조물을 다루는 풍수이다. 결국 대풍수 시대에서 소풍수 시대로 바뀌는 것은 문명의 방향이 자연 대신 인공으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현상이다. 좋게 말하면 풍수의 진화이고, 나쁘게 말하면 인스턴트화이다.

소풍수의 발생지는 홍콩이다. 홍콩은 땅은 좁고 인구는 밀집된 과밀 도시이기 때문에 청룡·백호를 따지는 전통적인 차원의 대풍수가 유통될 수 없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홍콩에서는 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묘지까지 배려할 공간이 없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니 음택(陰宅)의 문제는 뒷전으로 제쳐놓고 양택(陽宅)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



산정체 앞 잔디에 놓여 있는 해위 흥상.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볼 때 묘지를 명당에 쓰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음택 쪽은 애초에 수용이 불가능하고,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잘살 수 있는가 하는 양택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서구에서 유행하는 풍수 책의 상당수가 홍콩에서 퍼져나간 것들이라는 점이다.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한문으로 된 풍수 책을 60~70년대부터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이 책들은 처음에는 영국으로 그 다음에는 미국과 구라파로 전파된 것이다. 서양에 소개된 뒤 20~30년 간의 잠복기를 거쳐 90년대 초부터 풍수는 서양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먹히기 시작했다. 관심을 갖는 계층도 먹고살기 어려운 하층민보다는 먹고 살 만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라서, 풍수는 고급 문화로 인식되었다. 바야흐로 동양도 서양에 한 수 가르침을 베푸는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서양의 풍수 책들은 중국 사람이 쓴 것이 많고, 아니면 그 밑에서 훈도를 받은 서양인들이 쓴 책들이 대부분이다. 미국의 풍수 시장까지 중국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한국인이 쓴 책은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인

었고, 양택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소풍수로 발전한 것이다.

현재 한국 풍수의 전반적인 추세는 양택보다는 상대적으로 음택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고, 음택에서는 구조적으로 소풍수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없다. 음택을 중시하는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풍수가 주류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홍콩,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과 미국에서는 소풍수가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추세다. 유럽과 미국에 가보면 풍수에 관한 책이 신과학, 명상, 뉴에이지에 관한 책들과 함께 수십 종류나 출판되어 있다.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서양

들의 풍수 카르텔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한국 교포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풍수를 믿지도 않고, 믿지 않으니 수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 풍수 전문가가 육성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는 사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도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우직하게 지키는 차이니스들은 풍수라고 하는 고급 시장을 장악해버렸다.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 유명한 중국 지관이 받는 건물 상당료는 통상 건물가의 1퍼센트쯤 된다. 5억 불짜리 건물이면 500만 불이고, 5천만 불짜리 건물이면 50만 불을 상당료로 받는다는 이야기다. 그것도 한 건에. 풍수도 고부가가치 벤처 사업임을 직시하자.

“개화기 아래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인물을 배출한 집안”

이제 인명사전에 50여명이나 등재된 해평 윤씨 윤보선 대통령 집안의 가계를 살펴보자. 이 집안 가계와 인물들의 프로필은 조남준 씨가 95년 모 일간지에 연재한 <신명가>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오음(梧陰) 윤두수(尹斗壽, 1533~1601)가 해위의 10대 조이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평양으로 육박해 오자 여러 대신들이 함흥으로 옮기자고 하여 선조도 뜻이 같았으나, 윤두수는 함흥보다 영변이 방어하기에 유리하므로 영변으로 옮기자고 강하게 주장했다. 후에 함흥이 함락되고 두 왕자가 왜군에게 포로로 잡히자 그 선견지명에 모두들 감탄하였다.

집안이 크게 번성하기 시작한 것은 해위의 조부 때부터이다. 큰할아버지가 구한말 군부·법무대신을 지낸 윤옹열(尹雄烈)이고, 할아버지가 안성군수·육군참장을 지낸 윤영열(尹英烈)이다. 윤영열은 바로 소설 『단(丹)』에 등장하는 구한말 '8장사' 가운데 한 명이다. 대원군에게는 힘과 무술이 뛰어난 여덟 명의 장사가 있었다. 『단』의 내용 가운데, 마치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날 이 8장사가 우뚝한 독립문을 뛰어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독립문을 뛰어넘을 정도로 대단한 무공을 지녔던 인물이 바로 윤영열이다. 윤옹열은 치호(致昊), 치왕(致旺), 치창(致昌) 세 아들을 두었다. 치호는 1881년 최연소자(17세)

로 신사유람단에 끼여 일본을 다녀온 뒤 개화사상에 눈떴다. 뒤에 미국 유학을 하였고 귀국한 후에는 서재필, 이상재, 이승만과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했다. 현재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를 작사한 사람이기도 하다.

윤영열은 아들 치오, 치소, 치성, 치병, 치명, 치영 등 아들 6형제와 활란, 노덕 등 딸 형제를 두었다. 치오는 일본을 다녀온 사촌형 치호의 조언에 따라 단신으로 도일, 경웅의숙을 다녔다. 37세 때 대한제국 학무국장, 중앙중학교 교장을 지냈다. 치오의 장남 일선은 일본 경도제대 의학부를 나와 우리 나라 근대 병리학을 선도한 의학계의 태두로 해방 후 서울대 창설에 참여하여, 56년에서 61년까지 서울대 총장과 원자력원장을 거쳐 과학기술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차남 명선은 동경제대 법문학부를 졸업한 뒤 일본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 만주국 간도성창장을 지냈다. 부인은 공주 갑부로 유명한 김갑순의 딸인 김정자이다.

중추원 의관을 지낸 치소는 6남 3녀를 두었는데, 6남 가운데 장남이 보선, 제2공화국 대통령이다. 보선의 해위라는 아호는 상해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 신규식 선생이 지어준 것이다. 해위는 ‘바닷가 갈대는 바람에 휘날려도 꺾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선의 장남 상구는 시라큐스대 건축학과를 나와 건축 자재 사업을 하고 있다. 차남 동구는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을 졸업한 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녀 완구의 남편 남홍우는 일본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하고, 《형법강의 1》《형법강의 2》 등의 저서를 낸 형법 학계의 권위자로 고려대 교수를 지냈다. 차녀 완희는 화가로 활동했으며,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신규식의 아들 신준호와 결혼했다. 치소의 2남인 완선은 경도제대를 졸업했고, 3남 원선은 일본 동경 농림대를 나와 2공화국 때 민선 경기지사를 지냈다. 부인 이진완은 홍선대원군 이하옹의 증손녀다.

치병은 구한말 육군정위를 지냈으나 자녀가 없어 치소의 5남 택선을 양자로 들었다. 택선은 일본대를 나와 교통부장관 비서관, 국회교체위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치영은 와세다대, 하와이대, 조지워싱턴대를 연달아 졸업했는데, 일찍이 미국으로 건너가 이승만과 관계를 맺어 초대 내무장관, 서울시장, 3공화국

공화당의장을 지냈다.

이들 다음 세대에 배출된 인물들은 지면 관계상 부득이 생략할 수밖에 없다.
이 집안에서 배출된 수많은 인물들과 안국동 윤보선 고택을 보면서 과연 '개화
기 이래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인물을 배출한 집안'이라는 평이 과장이 아니라
는 생각이 들었다.